

2009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경제 전망

2008년 10월 29일

현정택

Korea's Leading Think Tank





C O N T E N T S

- I.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 동향
- II. 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I.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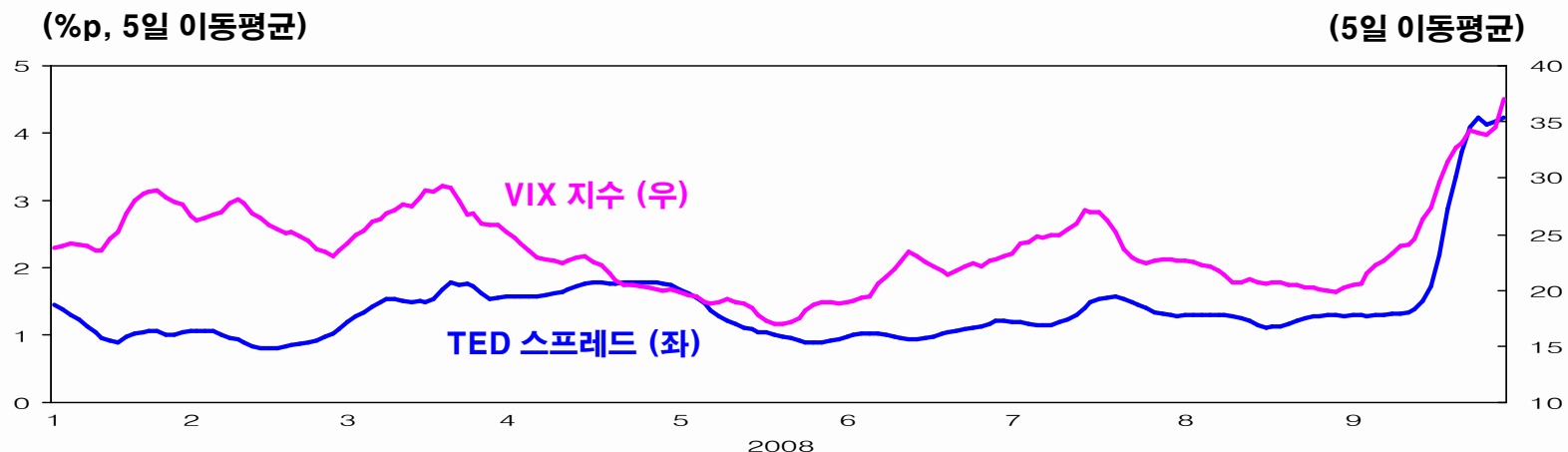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동향 (1/2)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요국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미국 정부의 연속적인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

- 미국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심화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스프레드가 9월 하순에 큰 폭으로 확대

미국의 TED 스프레드와 VIX 지수



주: 1) TED(Treasury-EuroDollar) 스프레드는 3개월 리보금리와 미국 3개월 국채수익률 간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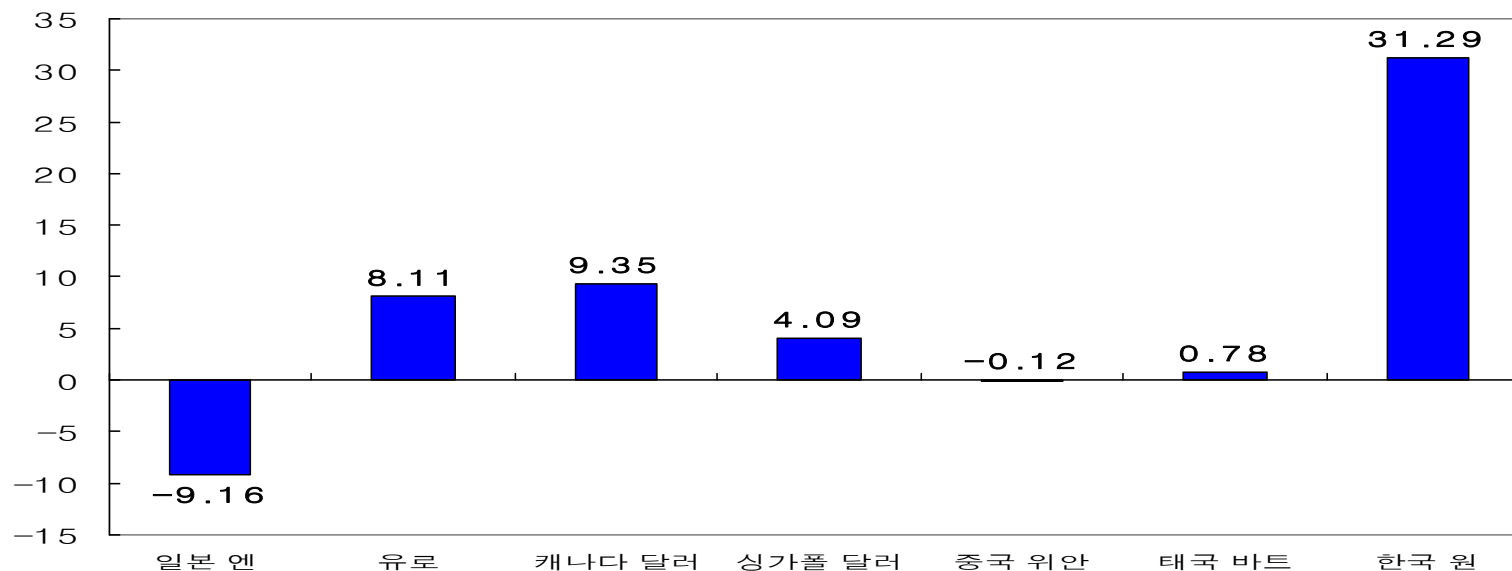
2) VIX(Volatility Index)는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국제금융시장 동향 (2/2)

달러화는 9월중 미국의 금융위기 및 미국 정부의 금융안정화 조치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약세를 보이다,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가 더욱 부각됨에 따라 유로화 등에 대해 **강세로 반전**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가치의 하락률

(8월말 대비 10월 10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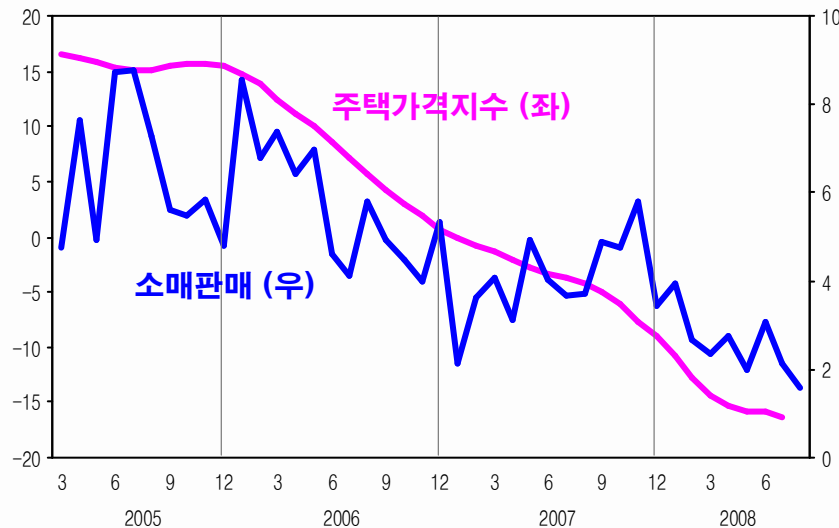
미국 및 유로지역 경제 동향

주택시장 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하강세가 가시화되는 모습

미국경제는 주택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소비 둔화세가 지속되고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세가 뚜렷
 유로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위축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주요 심리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와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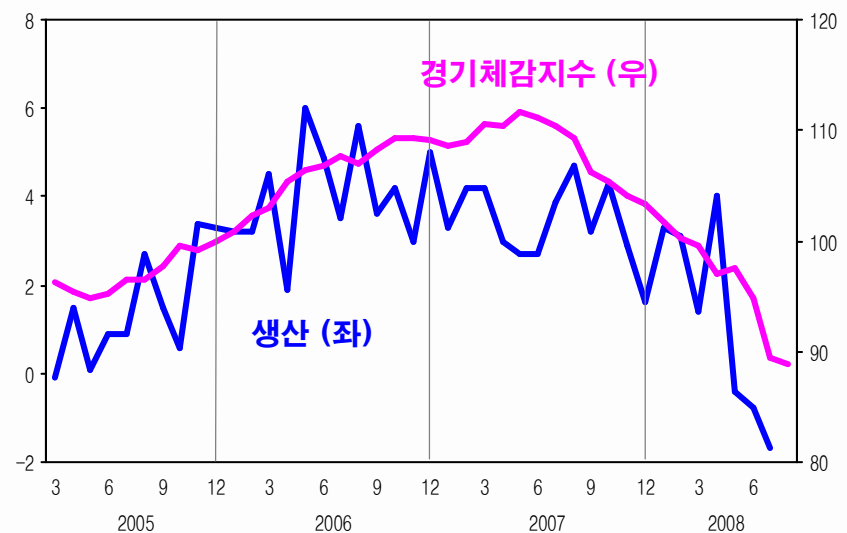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유로지역 생산과 경기체감지수

(전년동기대비, %)

(기준=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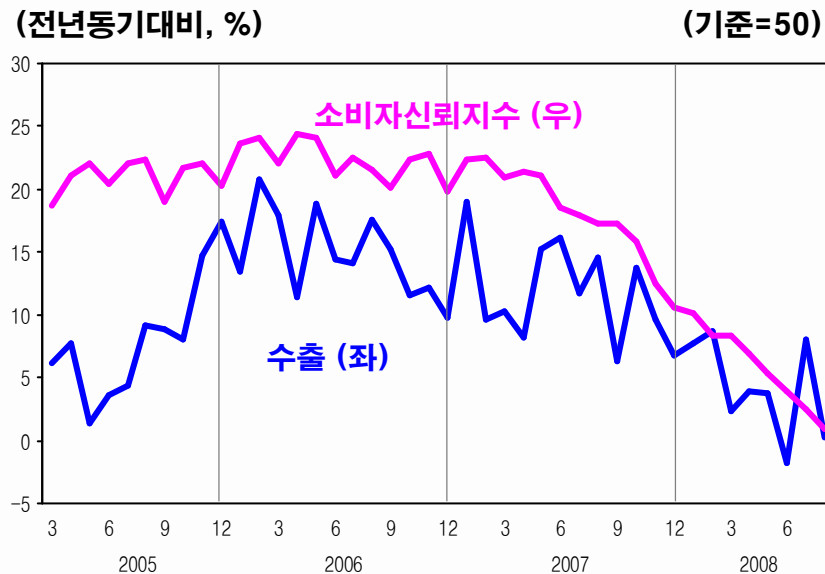


일본 및 중국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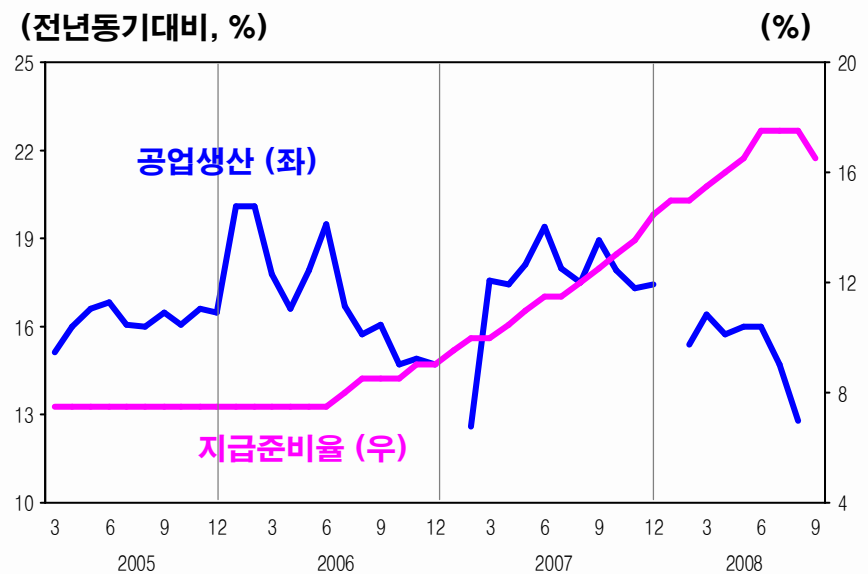
일본경제도 교역상대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은 정부의 긴축정책 및 선진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세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

일본의 수출과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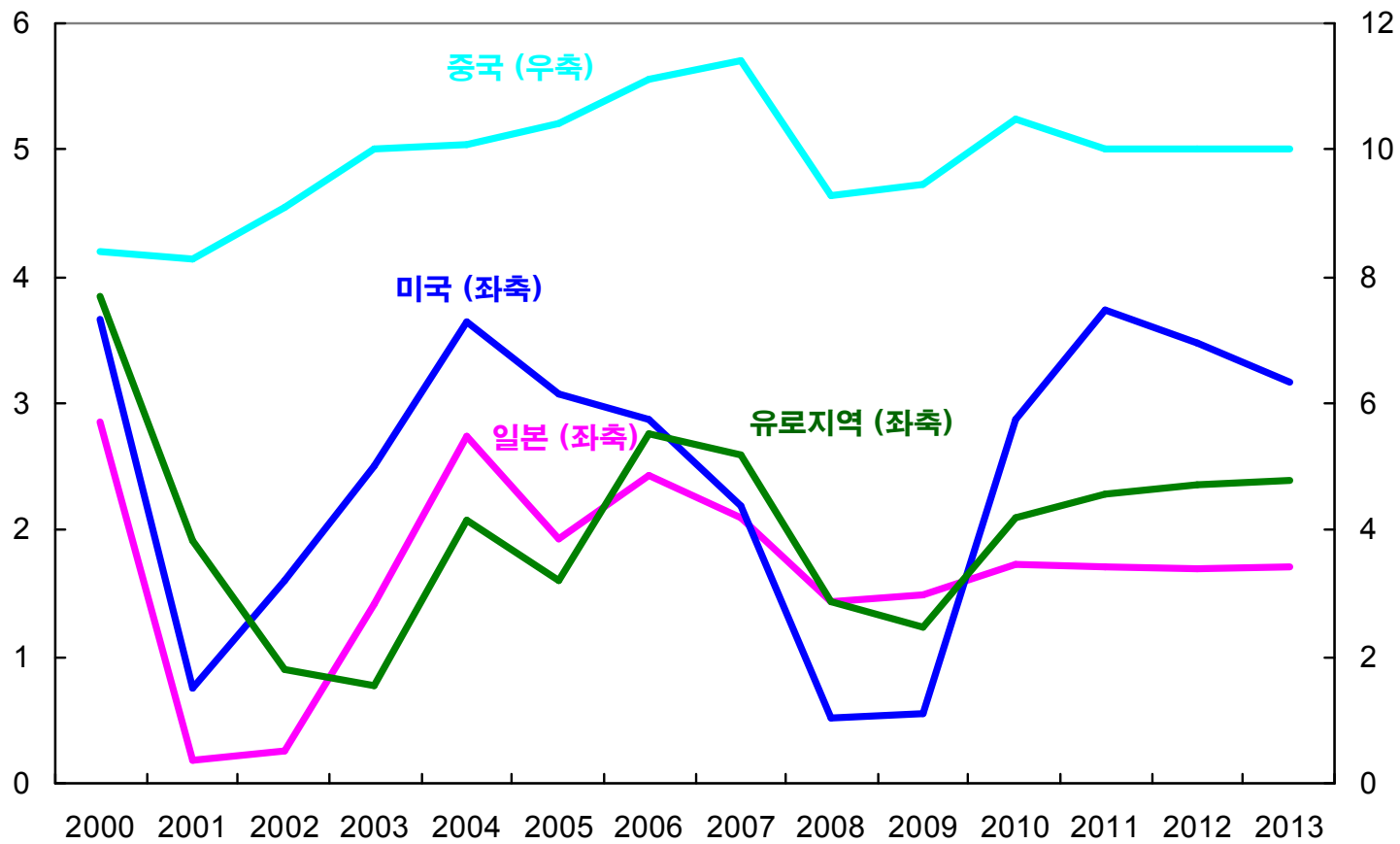


중국의 공업생산과 지급준비율



세계경제 중기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



자료: IMF

미국 경기침체의 아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 KDI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 – 세계경기의 미국 동조화 현상

미국경제-중국 및 아시아 경제 간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에 대한 논의

Dominique Strauss Kahn IMF 총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무역 외에도 금융 등 복합적인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경기의 미국 탈동조화 판단은 잘못된 것”

Henry Paulson 미 재무장관, “현재 금융시장 침체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며 탈동조화는 잘못된 믿음. 미국 신용경색이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속도는 세계 각국 간 대화와 공조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

구로다 하루히코 ADB 총재, “중국 등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최근 중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9%를 기록하면서 회의적 시각 확산



II. 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외환시장 동향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공급 위축에 따라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전반이 매우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증폭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10.19 발표)



은행 지원 : 은행 외화차입 3년간 지급 보증 (총 1,000억 달러)
은행권에 300억 달러 추가 공급, 한국은행서 국채 사들여
원화 공급

증시 안정 : 적립식 주식형 펀드 3년 이상 댄 소득 공제
거치식 장기 회사채형 펀드 3년 이상 댄 배당소득 비과세

중소기업 지원 : 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 출자해 중기 대출 12조원
확대

대외채무/채권 현황

대외채무

(단위: 억달러, %, %p)

	2007년말	2008년 3월말	2008년 6월말	분기 중 증감
대외채무	3,821.8 (100)	4,138.0 (100)	4,197.6 (100)	59.6 (0.0)
단기	1,602.6 (41.9)	1,764.7 (42.6)	1,756.5 (41.8)	-8.2(-0.8)
장기	2,219.2 (58.1)	2,373.3 (57.4)	2,441.1 (58.2)	67.8 (0.8)
유동외채	1,988.1 (52)	2,161.3 (52.2)	2,223.2 (53)	61.9 (0.8)

주: 유동외채=단기외채 + 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추정치), ()내는 대외채무에 대한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

(단위: 억달러, %, %p)

	2007년말	2008년 3월말	2008년 6월말	분기 중 증감
대외채권	4,177.1 (100)	4,269.6 (100)	4,224.8 (100)	-44.8 (0.0)
단기	3,321.6 (79.5)	3,388.3 (79.4)	3,356.6 (79.5)	-31.7 (0.1)
장기	855.5 (20.5)	881.3 (20.6)	868.1 (20.5)	-13.1 (-0.1)
준비자산	2,622.2 (62.8)	2,642.5 (61.9)	2,581.0 (61.1)	-61.5 (-0.8)
유동외채비율	75.8	81.8	86.1	4.3

주: 유동외채비율=유동외채/준비자산(%),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 외채 중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부분이 900억달러
- GDP 대비 외채비율 42.7% (영국 443.6%, 미국 99.5%, 일본 48%)
- 2008년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432억달러로 세계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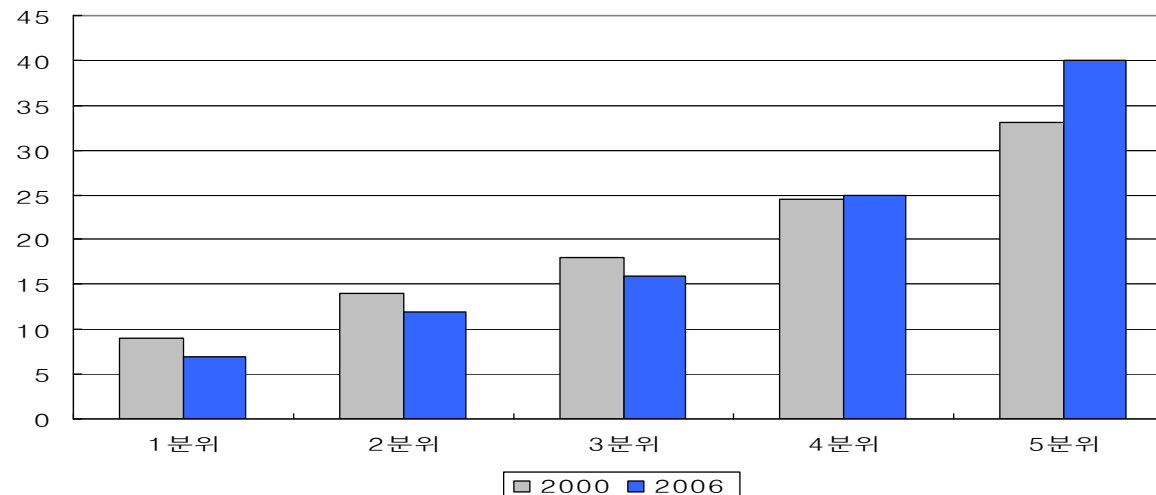
가계부채 (1/2)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가계의 실질부채규모(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는 가구 평균 174% 증가한 반면 실질소득은 정체

총자산 및 순자산 규모는 각각 103% 및 88% 증가하여 가계 자산이 소득 증가가 아닌 차입에 주로 의존하여 증가하였음을 시사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최상위(5)분위의 부채보유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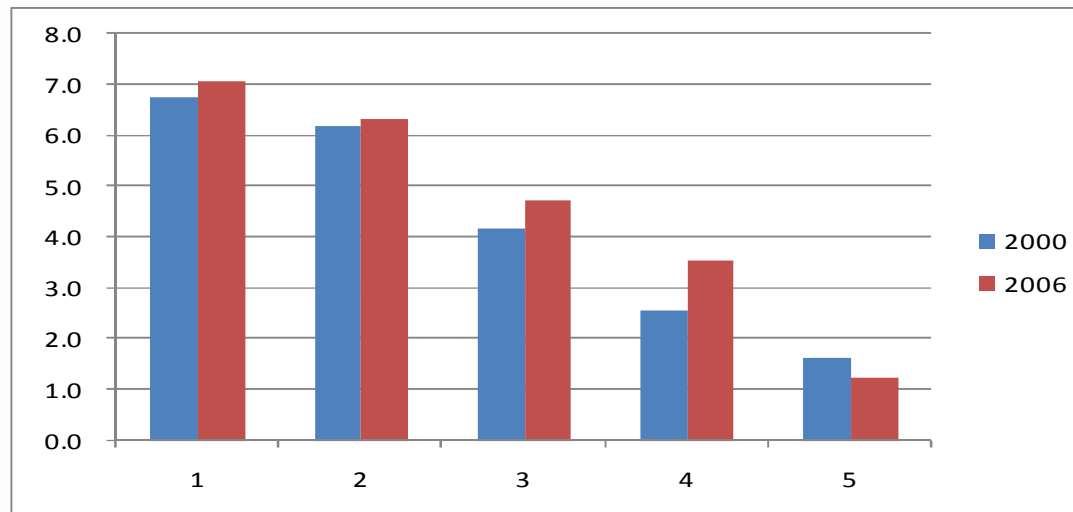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비중 (%)



가계부채 (2/2)

순자산(net wealth)이 음수인 가구 수 비중은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최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증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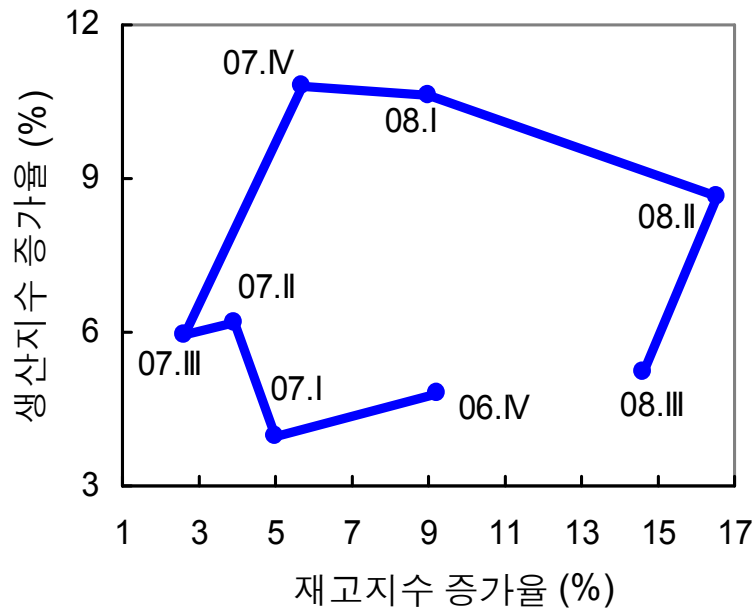


국내 실물 및 부동산 경기의 동시 침체 → 가계의 소득 및 부동산 가격 하락 →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증대 → 민간소비 위축, 경기침체 심화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

생산·재고 순환으로 본 한국경제 상황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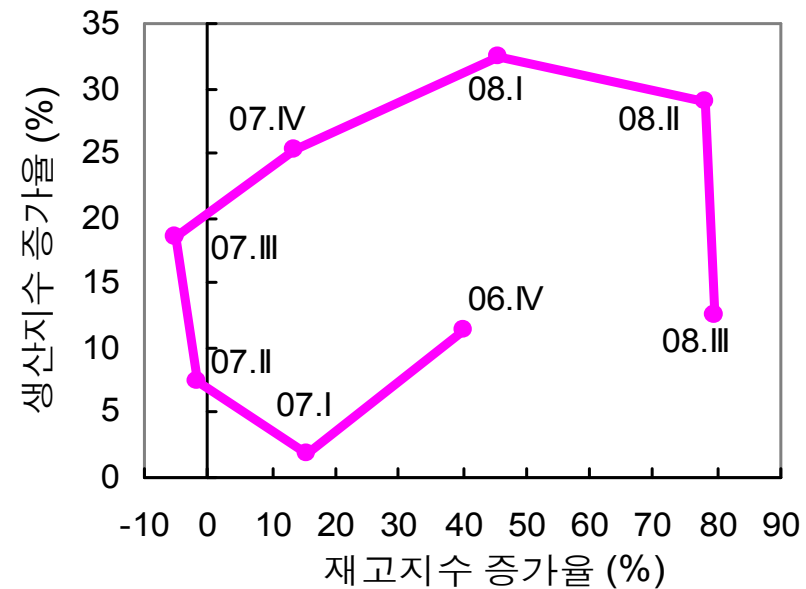
생산·재고 순환은 재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등 **경기 하강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전산업



주: 08. III는 2008년 7월과 8월의 평균값

반도체·IT 산업



주: 08. III는 2008년 7월과 8월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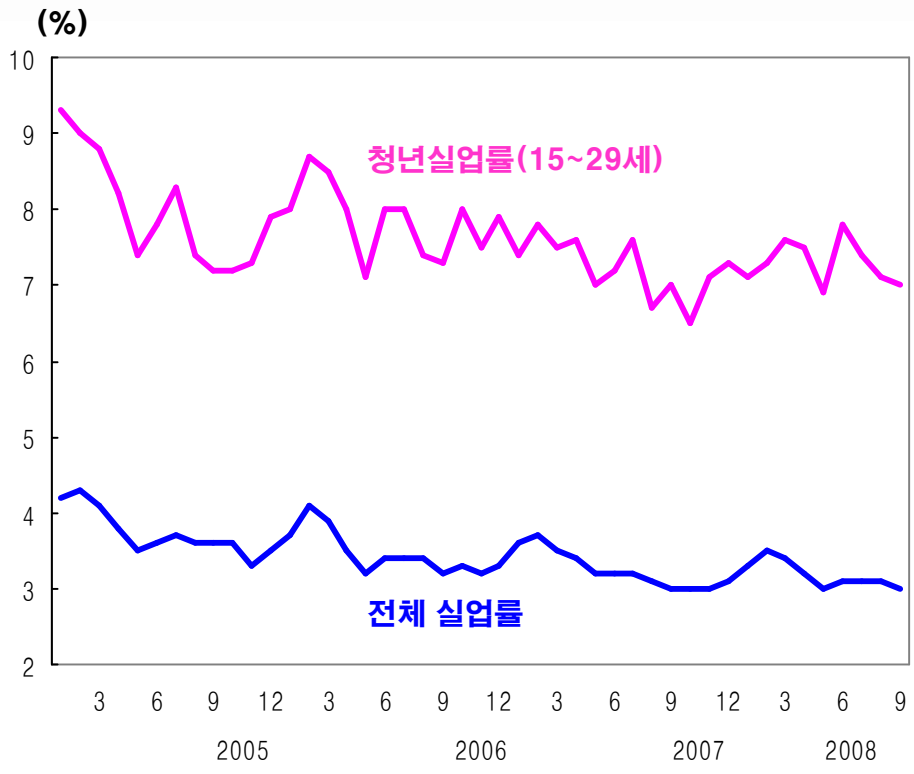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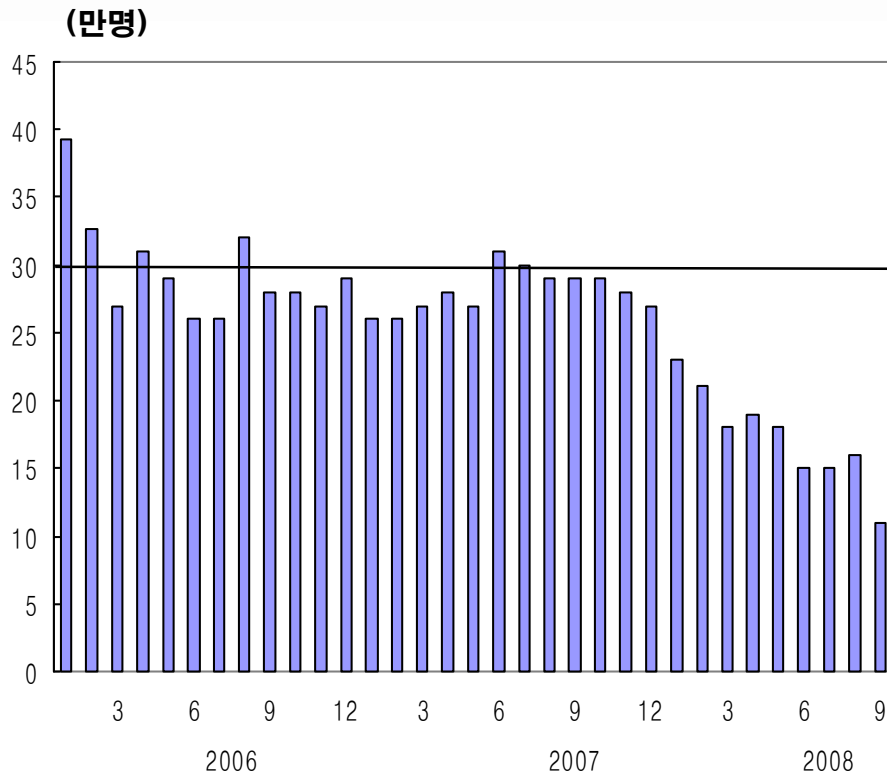
취업자 및 실업률 추이



신규취업자수가 매달 15만명 수준으로 부진하며, 15~29세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심각

취업자 증가

실업률



실물경제 침체 극복 위한 재정정책



법인세, 소득세 등 다양한 감세 방안 기 발표

- 지출 확대보다 감세가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감세는 경기대책의 의미와 별도로 시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중요

재정 조기 집행 및 지출 확대

- 급박하고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
 -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실업자, 저소득층 등)에 집중 지원
 - 금융기관 부실이 문제될 경우 금융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효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
 - (예) 공공기관 중심의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

2009년 경제 전망 (IMF, 2008.10)



(%)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2009 (전망)
한국	4.7	4.2	5.1	5.0	4.1	3.5
선진국	3.2	2.6	3.0	2.6	1.5	0.5
미국	3.6	2.9	2.8	2.0	1.6	0.1
유로	2.1	1.6	2.8	2.6	1.3	0.2
일본	2.7	1.9	2.4	2.1	0.7	0.5
중국	10.1	10.4	11.6	11.9	9.7	9.3
세계	4.9	4.5	5.1	5.0	3.9	3.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10)

KDI 경제 전망은 11월 중순 발표 예정

내년 경기 전망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금융경색 및 脫이머징마켓 현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상존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기업부문의 전반적 재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다소간의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결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내년 경기는 금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

단, 유가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실질구매력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면서 내수 및 고용도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감사합니다.